

노동정책연구
2013. 제13권 제3호 pp.91~123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결정요인 및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에 관한 연구*

강 순 희**

본 연구는 2011년도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상태와 취업결정요인, 그리고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고교 재학 중 진로관련 경험과 진로지도가 취업과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에 어떠한 효과를 미쳤는지에 주목하였다.

분석 결과, 고졸 취업자는 대졸 취업자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도 낮으며, 또한 직장에서 업무와 교육수준의 미스매치가 크고, 구직정보 획득이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재학 중 진로관련 경험이 많은 학생일수록 취업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진로상담 경험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상업계열의 경우와 고교성적이 상위권인 경우에 취업이 더 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고교 졸업 이후 현재 직장 이전의 일자리 경험 여부는 횡수는 취업과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에서는 재학 중 취업목표를 설정한 경우에는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현 직장 이전의 일자리 경험은 현재 일자리에 정착할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남자의 경우 재학 중 진로관련 경험이 많을수록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이 높으나 여자는 반대이며, 재학 중 진로상담 경험은 남녀 모두에서 오히려 현 직장에 계속 근무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고교에서 진로관련 경험이나 취업과 관련한 진로상담 프로그램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다. 남녀 모두에서 고교 재학 중의 성적이 높을수록 또한 현재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클수록 협의의 정착가능성, 즉 현재 일자리에 계속 머무를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논문접수일: 2013년 3월 18일, 심사의뢰일: 2013년 5월 2일, 심사완료일: 2013년 8월 19일

* 본 논문은 경기대학교의 2012년도 신진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직업학과 교수(soonehiekang@kgu.ac.kr)

본 연구는 청년층 고용문제 가운데 고졸자가 대졸 청년층과 구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특화된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고교 재학 중에 진로관련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되, 특히 진로상담을 포함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내실화하여 조기에 알맞은 일자리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학교 내에서의 이러한 노력에 더하여 학교 밖에서도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지원하는 일자리 매칭 시스템, 직업훈련 정책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용어 : 고졸자 노동시장, 취업결정요인, 노동시장 정착가능성, 재학 중 진로관련 경험, 진로지도

I. 서론

대졸자 과잉공급 등으로 인한 청년층 실업문제, 유희화와 관련하여 그간 정부는 대학 구조조정과 더불어 고졸채용 확대, 특성화고 및 마이스티고 육성 등 고졸자 취업 장려 및 유인 정책을 통하여 청년 고용문제를 완화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대학진학률이 최근 들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졸자의 노동시장 진입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¹⁾

그러나 고학력 선호가 여전히 강하여 취업하더라도 상급학교 진학을 피하고 동시에 공급과잉인 대졸자들의 하향취업 가능성이 크게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고졸자 노동시장이 안정적이고 중극적인 노동시장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 하는 의문이 든다. 고졸 청년들이 과거처럼 제조업 중심의 정규직 일자리로 이동하기보다는, 임시적 또는 비정규적인 일자리를 전전하다가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하거나 아니면 상급학교 진학을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이다.

하지만 같은 고졸자 내에서도 재학 중에 진로에 대한 준비를 거쳐 대학 진학이 아니라 노동시장 진출을 선택한 경우에는 보다 취업도 용이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구할 것이기에 이들은 상당 기간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머물

1) 고교 졸업자 중 취업자는 2009년에 일반계고 3,000여 명, 특성화고 25,000여 명에서 2011년에는 각각 5,000여 명, 35,000여 명으로 증가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11).

면서 경력개발을 피할 것이다. 특히 본래 진학보다는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우 이러한 특징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Pascual(2000)은 진로지도가 효과적으로 일자리 탐색을 하도록 하여 취업효과를 제고하는 예방적 고용정책으로서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White & Killeen(2002)은 진로지도가 직무만족도를 높여 일자리 정착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

그간 고졸자들의 경우 대졸자 이상에 비하여 실업률이 높으며, 취업할 경우에도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다수의 연구들에도 불구하고(전병유·이상일, 2003; 정인수·남재량·이승우, 2006; 김안국·신동준, 2006, 2007; 김유선·권혜자 외, 2009; 박상현, 2012; 박진희, 2012; 윤희한·신동준, 2012 등), 이들의 노동시장 정착이 어느 정도 안정적인지, 그리고 이러한 노동시장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다만, 고졸자들의 초기 취업이 불안정하고 열악하며, 경력개발을 수반하지 못하는 빈번한 노동이동을 근거로 이들이 노동시장의 저층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김안국·신동준(2007)의 연구가 있는 정도이다. 더구나 전국 수준의 대규모 조사 자료를 가지고 고교 재학 중의 진로선택과 관련한 활동이 고졸자들의 취업과 노동시장 정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분석은 더욱 미흡하다.

이와 같이 고졸자들의 노동시장 정착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이유는 전반적인 고학력화 현상 속에서 고졸자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측면도 있지만, 고졸자로서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시장 이행정보가 불충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노동패널(KLIPS), 청년패널(YP),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등에서도 고졸 미진학자에 대한 정보는 존재하나 그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아 세부 항목별 심층 분석은 어려웠다. 2011년에 실시된 『고졸자 취업진로조사』(HSGOMS2011)는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청년층 고용과 실업문제와 관련하여 대졸자 위주로 사회적 여론과 정책이 형성되고 고졸 미진학자들이 정책 및 연구대상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시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그간 별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고졸자들의 노동시장 정착가능성, 즉 이들의 노동시장이 안정적

이고 종극적인 노동시장으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이 개인적 배경, 고교생활, 직무특성 등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특히 고교 재학 중의 진로준비가 정책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고교 재학 중의 진로에 대한 준비를 거쳐 노동시장 진출을 선택한 경우에 취업이 더 용이한지,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은 어떠한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고졸 청년층의 취업실태를 대졸자와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적 배경, 경력, 고교 재학 중의 진로선택과 관련한 활동이 이들의 취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취업한 고졸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로부터 고졸자들이 학교에서 직장으로서의 원활한 이동과 안정적인 정착 및 경력경로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고졸자의 노동시장 정착에 대한 논의

고졸자 노동시장은 청년층 노동시장의 일부이기에 그 정착성도 먼저 청년층 노동시장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관련 이론이나 그간의 국내외 연구결과에 의하면, 청년층 노동시장은 다른 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동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년층은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실업상태에서 구직을 계속하든지 다시 진학을 피할 수도 있으며, 취업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더 좋은 일자리를 찾는 취업 중 일자리 탐색(on-the job search)을 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이병희 외, 2002; 이병희, 2003; 남재량·이철인 외, 2011 등). 이러한 청년층의 노동시장 유동화 또는 노동시장 정착은 개인이나 기업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아니면 두 주체의 공동 결정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먼저 개인의 입장에서 노동시장 정착은 인적자본이론, 노동이동이론, 또는

직업탐색이론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인적자본이론에 의하면 개인들은 기대수익의 현재 가치가 기대비용의 현재가치보다 더 큰 경우 추가적인 교육선택을 하게 되는데, 이때 교육으로부터의 기대수익과 기대비용에는 심리적 측면 등 비금전적인 내용도 포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취업 시 금전적인 보상만으로 고교 졸업 후 취업 시 기대수익의 현재가치가 클 수 있으나, 사회적·심리적 측면까지 포함할 경우 대학 졸업이 주는 기대수익의 현재가치가 크다면 고교 졸업 후 일단 취업을 하였다하더라도 다시 대학 진학을 선택할 유인이 클 수가 있다. 노동이동이론의 관점에서는 이동을 통한 기대수익의 현재가치가 그 비용을 넘어서는 경우 이동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직장이동을 설명하는 일반적인 논거가 되는데, 특히 진로와 직업정보 등이 불충분한 경우 경험이 일천한 청년들의 경우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빈번한 노동이동을 선택하는 경향이 클 수가 있다. 직업탐색이론은 구직자의 직업탐색 활동과 기업의 근로자 탐색활동, 그리고 이 둘에 의한 탐색기간(실업기간)의 결정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청년들의 경우 불완전 정보, 직무나 숙련, 그리고 유보임금과 제공되는 일자리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직업탐색 기간이 길어지거나 취업과 실업을 반복할 수 있음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된다. 남재량·이철인 외(2011)에서는 직업탐색이론을 마찰적 요인(market friction), 임금제안의 질적 요인(wage-offer distribution), 본인의 선택(reservation wage)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세 가지 이론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강조점이 다를 뿐이며, 현실에서는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의 이론만으로 청년층의 노동시장 정착성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인적자본투자의 관점에서 개인은 고등교육이나 노동이동, 시장정보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보의 불완전성이나 기대수준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 정착까지 잦은 이동을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구직기간도 길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들 이론을 복합하여 개인들의 노동시장 정착 결정을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 본다. 이는 Ryan(2001)의 연구에서도 보여지는데, 그는 일자리의 기대수익(인적자본투자이론)과 더불어 정보비대칭성(직업탐색이론)이 청년층의 높은 노동이동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Jovanovic(1979)은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빈번한 일자리 탐색(job shopping)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매칭모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동을 통한 인적자본투자수익의 극대화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인적자본투자이론과 노동이동, 직업탐색이론을 혼합한 논리라고 볼 수가 있다.

한편 노동수요 측면에서 기업의 고용전략도 청년층 노동시장의 정착성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Anderson(1993)은 기업이 채용과 교육훈련, 해고, 실업보험 부담 등의 고용조정비용이 클수록 고용조정을 덜 하려는 전략을 쓰기에 그러한 경우 종업원의 정착성은 커지게 되며, Akerlof and Yellen(1986)은 효율임금이론(efficiency wage theory)을 통하여 기업들이 시장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종업원의 이직을 방지하고 직장과 일에 대한 몰입도를 높여 생산성 증대를 가져옴을 밝히고 있기도 하다. 이 외에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임금 등 보상이 증가하는 기업의 보상제도도 근로자의 정착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논의는 청년층 노동시장이 하나의 경쟁적이며 연속적인 노동시장임을 전제로 한 이른바 경쟁노동시장가설에 근거한 이론이다. 청년층의 노동시장 정착과정은 청년층 내에서도 고학력자와 저학력자, 또는 성별 등에 따라 제도적 요인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 주목하여 경쟁적 노동시장과 대비되는 노동시장구조론으로 이를 설명하기도 한다. Osterman(1980), Marsden and Germe(1991) 등은 분단된 노동시장(segmented labor market)에서 청년들은 저임금의 이차적 노동시장에 머물면서 고임금의 일차적 노동시장으로 이동하기를 기다리는데, 그동안 빈번한 노동이동을 경험한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시장의 분단성(segmentation)이 강하고²⁾ 고학력화가 일반화된 환경에서는 고졸자와 대졸(이

2) 일찍이 이효수(1984)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성과 학력에 따라 구조적으로 분단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이후 류장수(1993)는 우리나라 전체 노동시장이 숙련별로 분단되어 있으며, 전병유·이상일(2003)은 청년 일자리 집약산업에 대한 숙련수준별 분석을 통하여 고졸 미진학층이 취약계층으로 퇴적되고 있어 분단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김안국·신동준(2007)은 명시적으로 분단화를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고졸자들의 초기 취업이 불안정하고 열악하며, 경력개발을 수반하지 못하는 빈번한 노동이동을 근거로 이들이 노동시장의 저층에 머물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이시균·양수경(2012)은 청년남자들의 경우 노동시장 분단화로 인하여 초기에 양호한 일자리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미취업에 따른 오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취업기간이 길어짐을 주장하고 있다.

상)자 사이의 노동시장의 구조나 그 안정성에는 차이가 클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노동시장구조론 등 제도적 측면에 대하여는 방법론이나 자료의 한계로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으며, 추후 별도의 연구주제로 남겨 놓는다.

이제 고졸자의 노동시장과 관련한 국내 선행연구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간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고졸 미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병유·이상일(2003)의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고학력화 현상 속에서 고졸자 일자리가 전문대졸자로 대체될 가능성(crowding-out effects)이 있고, 고졸 계층이 고용성파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정인수·남재량·이승우(2006)는 고졸 청년 실업자가 전체 청년 실업자의 60%를 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실업률도 가장 높으며, 고졸자를 세부 그룹별로 나누어 볼 때 순수 고졸자 및 대학 중퇴 집단의 실업률이 대졸자보다 높은 것은 이들의 빈번한 이직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이들의 이직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일자리와 근로자의 불합치(mismatch)에 의한 부분이 크다고 한다.

김안국·신동준(2006)은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의 1차와 2차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고졸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이 원활하지 않고 유희화율이 매우 높음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반고 졸업 청년들은 실업고(현 특성화고) 졸업 청년들보다 노동시장 이행이 어렵고, 고졸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경험은 청년들의 노동시장 이행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직종과 업종에의 취업이 많았는데 대부분 경력개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직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김안국·신동준(2007)도 고졸 청년층이 매우 빈번한 노동이동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더구나 직장이동에 의한 근무형태와 종사상 지위의 변화분석을 통하여 이러한 직장이동이 정보를 탐색하여 자신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며 숙련형성이나 경력개발을 이루어 가는 과정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형한·신동준(2012)은 교육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등을 통하여 고졸 취업자가 전문대졸, 대졸 이상 등에 비하여 작은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으며, 임금근로자나 상용근로자인 비중이 낮고 임시일용근로자인 비율은 훨씬 높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 분석에 따르면, 고졸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가장 길

고, 월평균 임금은 가장 낮다. 청년층 취업 임금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현재 일 자리를 유지하는 비율도 고졸이 가장 낮았는데, 고졸자의 경우 자발적으로 현 직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로 ‘생활비 등 당장 수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전문대졸이나 대졸자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 생계 문제로 불가피하게 현재 일을 계속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청년층 임금근로자들이 지난 1년간 교육훈련을 받은 비율은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으나 고졸 청년의 교육훈련 경험과 교육훈련 참여시간은 전문대졸이나 대졸 이상에 비해 낮다.

박진희(2012)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미진학 고졸 취업자들의 고용구조와 노동이동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들이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 및 근로조건이 열악하며, 근로시간 등 작업여건의 불만족으로 노동이동을 희망하거나 노동시장에서 퇴장함을 밝히고 있다.

박상현(2012)은 본 연구와 같이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남자 고졸자들이 여자에 비하여 고용성고가 미흡하며, 취업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취약한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 많이 취업하고 있고, 일자리 만족도 중 인사체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아 기업체 내의 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대졸자와 비교분석을 하지는 않았으며, 또한 기술통계 분석에 그치고 있다.

노경란·허선주(2012) 역시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특성화 고졸 졸업한 청년층의 취업결정요인을 분석하고 있다. 개인 및 가구특성, 취업 목표, 학교 및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교육 및 훈련, 구직활동과 관련한 변인들을 단계적으로 투입하는 6가지 모형을 실증한 결과, 부모학력, 가계소득, 취업 목표 유무, 학교교육 및 진로지도 만족도, 가정에서의 진로지도, 직업교육훈련 등은 취업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으며, 구직활동을 할수록 오히려 취업이 어려울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은 하고 있지 않다.

청년층 노동시장에 대한 이상의 논의나 선행연구 결과에서 볼 때, 고졸자의 경우 대졸자들에 비하여 노동시장에 정착하기까지 이동이 잦으며, 취업할 경우에도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은 정형화된 사실로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고졸자들이 취업한다 하여도 더 나은 일자리로 옮기려고 하거나 상

급학교로의 진학을 피하기 때문에 그들의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못할 것임을 짐작케 한다.

그러나 그간의 연구에서는 고졸자 노동시장의 열악한 실태나 이행의 불안정성에 주목하고 있을 뿐 고졸자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경우 그러한 일자리에 정착할 가능성이 어떠한지, 즉 고졸자 노동시장이 균 입대, 대학 진학 등으로 나아가는 임시적이고 경과적 경로는 아닌지 하는 것에 대한 연구는 찾기 힘들다. 또한 이러한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특히 고교 재학 중 진로준비 활동이 어느 정도 취업이나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되고 있지 않다.

2. 연구문제

본고는 이러한 측면에 주목하여 고졸자 노동시장 이행과 취업에 초점을 맞추어 본격적으로 조사한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이상의 내용을 단계적으로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기초분석을 통하여 고졸자들이 취업실태를 대졸자와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의 결과가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자료를 통해서도 지지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는 고졸자들의 취업실태가 대졸자들에 비하여 열악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고졸자들의 취업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고졸자들의 경우 취업 등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 연령 등 개인적 배경, 부모의 교육수준, 가구 소득, 가구원 수, 자녀 수 등의 가족적 배경, 고교 재학 중 성적, 고교계열, 재학 중 징계여부, 일 경험, 진로관련 활동 등 학교생활 변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채창균, 2006; 최동선, 2008; 박혜숙, 2009; 김안국·신동준, 2011; 노경란·허선주, 2012; 변수용·김경근, 2012 등).

이들 변수 이외로 여기에서는 특히 고교 재학 중 진로관련 경험이나 진로상담 등에 대한 참가 정도 등 진로준비 노력이 취업결정이나 노동시장의 정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진로발달이론에 의하면, 초등학교

는 진로인식단계, 중학교는 진로탐색단계, 고등학교는 진로준비단계, 대학교는 진로전문화단계로 구분되는데(김충기, 2000), 이 중에서도 고등학교에서의 진로탐색과 관련한 노력이 그 이후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한다(김강호·정윤경, 2009). 이들 진로발달 연구에서는 주로 진로성숙도라는 개념 틀에 입각하여 자신에 대한 이해, 진로계획이나 진로결정 및 행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하는 개인의 태도적인 측면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김강호·정윤경, 2009), 노동시장 성과에는 그다지 주목하고 있지 않다. 또한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외국어 준비, 일 경험 등 개인의 취업준비 행동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 연구는 꽤 있으나, 재학 중 학교에서의 진로지도나 취업지원 등의 노동시장 성과와 관련한 연구는 이상준(2009), 강순희·이상준(2009)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1 : 고졸자들의 개인적 속성, 가족적 배경, 고교계열 등 학교특성, 재학 중 성적 등 학교생활, 일 경험, 군 입대 계획 등은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1-2 : 특히 고교 재학 중 취업목표 설정, 진로관련 경험이나 진로상담 등의 진로준비 노력은 취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다음은 취업한 고졸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인지, 즉 고졸학력으로서 현재의 일자리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자리로 옮기더라도 계속하여 노동시장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상급학교 진학 등 새로운 경력개발 경로를 찾고자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관련이론이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년층 노동시장은 다른 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동적인데,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다 하더라도 적합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실업상태에서 구직을 계속하든지 다시 진학을 피할 수도 있으며, 취업상태에서도 계속하여 더 좋은 일자리를 찾는 취업 중 일자리 탐색을 하는 경향이 많다. 특히 우리나라는 임금 등 금전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결혼시장이나 심리적 보상 등 비금전적인 측면을 포함할 경우, 고등교육으로부터의 기대수익이 기대비용보다 훨씬 클 수가 있기에 고교 졸업 후 일단 취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다시 대

학 진학을 선택할 유인은 클 것이다. 더구나 진로와 직업정보 등이 불충분한 경우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의 경우 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잦은 노동이동을 하게 될 것이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학교에서의 진로지도나 진로준비와 관련한 활동은 노동시장 정착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대, 출산 및 육아 등에 따라 생애경로나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기대비용과 수익은 남녀 간에 차이가 클 수 있기에 노동시장 정착가능성도 남자 고등학생과 여학생 간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에 기초하여 두 번째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2-1 : 취업한 고졸자들은 고졸학력으로 현재의 일자리를 지속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자리로 옮기더라도 계속하여 노동시장에 머무르려고 하는가, 아니면 상급학교 진학 등 새로운 경력개발 경로를 찾고자 하는가?

연구문제 2-2 : 이러한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에 개인적 특성, 가족배경, 고교생활, 졸업 이후 일자리 경험, 특히 재학 중 진로관련 경험이나 진로상담 등 진로준비 노력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3 : 그리고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은 남자와 여자 간에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가?

Ⅲ. 자료와 분석방법

1. 자 료

본 연구에서 주로 사용한 자료는 2011년에 조사된 『고졸자 취업진로조사』(HSGOMS2011)이다.³⁾ 이 조사에서는 2011년 2월 고등학교 졸업자들 가운데 대학 진학자, 재수생 등을 제외한 취업대상이 되는 미진학 고졸자 5,700여 명을 대상으로 하여,⁴⁾ 현재의 경제활동상태, 현재 및 졸업 후 경험한 일자리, 재학

3) 당초 이 조사는 패널조사로 기획되었으나, 고졸 청년층의 특성상 군 입대 변수와 패널유지관리, 조사의 어려움 등이 고려되어 일단 횡단면조사로 변경되었다.

중 교육 및 진로선택과 관련한 사항, 졸업 후 구직활동과 교육훈련 등을 묻고 있다. 특히 졸업 전 진로선택 활동과 관련하여 취업목표 설정여부 및 그 내용, 취업준비 활동으로서 고교에서의 진로상담, 직업정보 제공, 진로관련 검사 등을 포함한 진로지도, 학교의 기술습득 및 자격증 취득 등 취업지원, 본인 스스로의 진로준비 관련 활동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질문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고졸 취업자와 대졸 취업자의 비교를 위하여 이용 가능한 자료 중 졸업시기가 가장 가까운 『2009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2009) 자료를 사용하였다. 조사 시기는 HSGOMS2011이 2011년 5월이며, GOMS2009가 2010년 9월로 약 8개월의 차이가 있다. 조사 대상자의 졸업시점은 차이가 조금 더 큰데, HSGOMS2011은 2011년 2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며, GOMS 2009는 2008년 8월과 2009년 2월에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어서 졸업 후 조사시점까지의 기간이 HSGOMS2011의 경우에는 3개월에 불과하나 GOMS2009는 20개월 정도에 이른다. 해석 시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래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에서는 일반계고 학생 700여 명이 표본으로 포함되어 조사되었으나 응답부실 등이 많아 공개된 원시자료에는 이들 응답은 빠져 있기에 여기에서 사용된 고졸자 데이터의 경우에는 모두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고졸자에 대한 분석은 사실상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분석이다.⁵⁾

2. 변수와 분석방법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재학 중 진로준비를 포함하여 개인 특성이나 가족배경, 경력, 고교 재학 중 학교생활 등이 취업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

4) 이는 2011년 4월 기준의 전국 고졸자 조사모집단에서 층화이중추출법(stratified double sampling)으로 추출한 수치이며, 이하에서는 가중치를 부여한 54,046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할 것이다.

5) 굳이 논의에서 ‘특성화고 졸업자 노동시장’이라 하지 않는 이유는 인문계고 졸업자 대부분이 대학에 진학하거나 진학준비로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 현실에서, 고졸자 노동시장은 사실상 특성화고 졸업자 노동시장과 거의 같은 범주로서 고졸자 노동시장을 대표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만, 논문제목에서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분명히 하였다.

치는지, 즉 취업결정요인을 보기 위하여 현재의 일자리 취업여부를 중심으로 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명변수로는 먼저 개인적 속성변수로서 성별만을, 고교특성과 학교생활 변수로서 학교계열, 재학 시의 성적,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도, 진로준비와 관련한 변수로서 취업목표설정 여부, 교육과정 만족도, 진로관련 경험의 빈도 또는 여부, 진로상담 경험 유무, 그리고 고교 졸업 후 현 직장 이전 일자리 경험 여부와 횟수,⁶⁾ 가구배경으로서 부모님의 학력, 가구원 수, 부모님의 총소득 등을 포함하였다.⁷⁾ 특히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미진학자의 경우 군 입대가 진로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향후계획으로 ‘군 입대’를 더미변수로 포함하였다. 취업결정요인 분석 시 통상적으로 고려하는 개인적 속성변수로는 연령, 학력, 혼인, 가구주 여부 등이 있으나 본 자료가 2011년 고졸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이기에 성별 이외의 변수들은 큰 차이가 없어 변수로서 의미가 없다고 보아 배제하였다. 대졸자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재학 중 취업준비 노력이 취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박성재·반정호, 2006; 안준기, 2009; 김정숙, 2009; 노경란·박용호 외, 2011 등)를 참고하여 고교 재학 중 취업준비 노력으로는 재학 중 취업목표 설정, 교육과정 만족도, 진로관련 경험 횟수, 진로상담 경험 변수를 포함하였다. ‘재학 중 진로관련 경험 횟수’의 경우 고등학교 재학 시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경험한 행동⁸⁾의 빈도를 평균하여 산출하였다. 빈도에 대한 응답은 5

-
- 6) 고교졸업 후 비교적 안정된 일자리에 정착하기까지 경험한 일자리가 아르바이트성의 임시적 일자리일수도 있기 때문에 일자리 경험여부와 그 대신에 일자리 경험 횟수를 변수로 한 분석을 각각 시행하여 비교하여 보았다.
 - 7) 이러한 변수 통제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성격 등 관찰되지 않는 개인의 특성으로 인한 내생성 문제가 존재한다. 하지만 고교 성적이나 학교생활 만족도 문항은 개인이 지닌 잠재적 능력, 성실성, 기타 성격 등의 관찰하지 못하는 변수를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특성화 고교생 중 학교성적이 좋은 학생은 비교적 성실하며, 잠재적인 능력도 뛰어난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것이다.
 - 8) 진로관련 경험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 본 적이 있다. ② 내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이메일, 전화 등)해 본 적이 있다. ③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 대한 동영상이나 TV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다. ④ 내가 관심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 이야기 해 본 적이 있다. ⑤ 나의 진로 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상담을 받아 본 적이 있다. ⑥ 진로와 관련하여 나의 적성이나 흥미, 성격 등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를 받아 본 적이 있다. ⑦ 내가 원하는 직업에서 요구하는 능력이나 기술을 갖추기 위해 학원수강이나 자격증 취득을 준비해 본 적이 있다.

점 척도로 되어 있으며 무응답 및 결측값은 평균에서 제외하였다. ‘재학 중 진로상담 경험’은 고등학교에서 받은 진로지도 가운데 ‘졸업 후 진로와 관련된 진로상담 및 지도’를 경험한 경우를 의미한다. 부모학력의 경우 교육연수로 변환하여 이용하였으며 재학, 중퇴, 휴학의 경우 졸업에 해당하는 교육연수에서 1을 차감하였다. 가구소득의 경우 범주형 변수를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소득 없음’의 경우 0으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나서 고졸자들의 노동시장이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시적으로 선택된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향후 진로계획 중 대학진학이나 유학, 어학연수 등 ‘계속 학습 희망자’가 현재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스퀘어 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고졸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경력경로상 자발적 취업선택’이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임시적인 경우라면, 취업자의 경우에도 향후 대학 진학이나 유학 등 계속하여 학습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 미취업자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초분석을 토대로 고졸자들의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하여 취업자만을 대상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노동시장에의 정착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종속변수로는 향후 진로를 묻는 항목에서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니겠다’(협의의 정착가능성)는 응답과 나머지 응답으로 나눈 것과,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니겠다+직장 옮김+취업+개인사업이나 창업’(광의의 정착가능성)과 나머지 응답으로 나눈 두 가지를 채택하였다. 또한 고졸자의 진로에서 군 입대, 대학진학이나 향후 경력경로 등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클 수 있음을 고려하여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고교 재학 중의 취업관련 노력과 종속변수로 채택한 향후 진로 문항의 상관관계가 클 수 있기에 설명변수에 고교 재학 중 취업관련 노력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을 먼저 처리하고 다음으로 고교 재학 중 취업관련 노력을 포함한 모형을 처리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⁹⁾

설명변수로는 취업결정요인에서의 개인특성, 학교생활, 가구배경, 현 직장 이

9) 이에 대하여 유익한 논평을 하여준 익명의 논평자에게 감사드린다. 그러나 이러한 성별로 나눈 다음의 위계적 회귀분석에도 불구하고 향후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 관찰되지 않는 개인의 특성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내생성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횡단면 자료의 속성

전 일자리 경험 변수 이외로 현재 일자리의 특성으로서 임금근로자 여부, 대기업 여부, 제조업 여부, 생산직 여부, 그리고 현재 취업에서의 만족도를 추가적으로 채택하였다. 또한 현재 취업에서의 만족도로 ‘전반적인 만족도’를 채택한 모형 이외로 ‘임금/소득 만족도’가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 ‘전반적인 만족도’ 대신에 이를 채택한 모형으로 나누어 검증하였다.

IV. 실증분석

1. 고졸자의 취업실태

먼저 고졸자의 취업실태를 대졸자와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자. 현재 일자리의 종사자 수를 보면, 고졸자의 경우 30인 미만의 영세사업체에 43.3%, 300인 이상 사업체에는 30.8%가 취업하고 있는 데 비해, 전문대졸자는 각각 46.7%, 27.1%, 대졸자는 각각 29.4%와 40.2%로서 고졸자가 종사하는 일자리의 규모는 전문대졸자보다는 오히려 큰 곳이 많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모만으로는 고졸자들이 고학력자, 특히 전문대졸자보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한다고 말하기 어렵다(표 1).

따라서 취업자들의 고용실태를 개인 단위에서 볼 필요가 있다. 먼저 <표 2>에서 학력별 취업실태를 종사상 지위에서 보면, 고졸자의 경우 상용직의 비율이 64.3%임에 비하여 전문대졸자는 84.2%, 대졸자는 85.1%를 보이고 있으며, 반면에 고졸자들은 임시, 일용직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다. 고졸 취업자들이 전문대졸 이상 계층보다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더 많이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¹⁰⁾

상 이는 본 연구가 지니는 근본적인 한계로서 향후 성향점수매칭(PSM) 등 다른 방법론을 통한 분석은 추후의 과제로 남긴다.

10) 이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일자리, 즉 기간제 근로 여부에서도 확인된다. 고졸자들은 근로계약이 정해져 있는 일자리(‘계약직’)에 취업한 비율이 42.7%임에 비하여 전문대졸자는 17.5%, 대졸자들은 20.9%에 그치고 있다. 즉 전문대졸 이상자들은 통상적인 정년제

〈표 1〉 일자리의 종사자규모

(단위: 명, %)

		고졸	전문대졸	대졸
종 사 자 수	1~10명	27.8	28.9	16.0
	10~29명	15.7	17.8	13.4
	30~99명	14.8	16.1	19.1
	100~299명	11.2	10.0	11.1
	300~999명	10.7	7.1	11.2
	1,000명 이상	20.1	20.0	29.0
전 체		40,728(100.0)	153,511(100.0)	204,226(100.0)

〈표 2〉 종사상 지위

(단위: %, 명)

			고졸	전문대졸	대졸
종 사 상 지 위	임금 근로자	상용직	64.3	84.2	85.1
		임시직	32.6	8.5	10.4
		일용직	2.5	1.2	0.7
비임금 근로자	고용주	-	3.2	1.5	
	자영자	0.1	2.7	2.3	
	무급가족종사자	0.5	0.2	0.1	
전 체			41,024(100.0)	153,512(100.0)	204,226(100.0)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의 일의 내용과 교육수준을 비교하여 보면, 스스로 판단하기에 ‘교육수준과 일의 수준이 알맞다’는 응답은 고졸자가 51.8%임에 비하여 전문대졸자는 72.6%, 대졸자는 73.0%로서 고졸자가 교육수준과 적합한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낮다.¹¹⁾

또는 무기계약 등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에 취업한 비율이 크게 높다. 근로계약을 정한 기간제 근로의 경우에도, 고졸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이 83.0%로 다수를 차지함에 비하여 전문대졸자나 대졸자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은 각각 28.9%, 34.2%에 그치고 있으며 1년 이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기간제 근로 내에서도 고졸자들이 상대적으로 단기적 일자리로서 고용불안에 더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11) 주관적 판단에 기초하여 교육수준과 일의 내용의 일치도를 파악하는 것이 한계도 있지만 객관화가 가지는 비포괄성을 극복하는 장점도 있다. 한편 고졸자의 교육수준에 비하여 일의 수준 적합도가 낮은 것은 고졸자의 일자리의 성격에서도 나타나는데, ‘낮다’는 응답자의 54.4%가 임시·일용직으로 전문대졸의 21.3%, 대졸자의 21.0%보다 훨씬 높고, ‘높다’는 응답자 중 상용직 비율은 81.9%로 전문대졸의 87.4%, 대졸자의 88.0% 등에 비금하고 있다. 즉 상대적으로 취약한 일자리에 취업한 고졸자들은 그러한 일자리가 교육수준에 비하여 낮다고 느끼고, 높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에 취

〈표 3〉 현 직장 일의 내용과 교육수준

(단위: 명, %)

		고졸	전문대졸	대졸
교육 수준 보다	일의 수준이 낮음	31.3	16.0	15.2
	일의 수준이 알맞음	51.8	72.6	73.0
	일의 수준이 높음	16.9	11.4	11.8
전 체		40,927(100.0)	153,510(100.0)	204,228(100.0)

주: 낮음은 매우 낮음과 낮음, 높음은 매우 높음과 높음의 합계임.

〈표 4〉 현재 일자리 정보 취득경로

(단위: 명, %)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일자리 정보 취득 경로	학교	0.0	8.2	8.7
	대중매체	4.7	3.2	1.6
	인적네트워크	81.9	42.1	31.0
	공공	1.2	1.5	0.8
	인터넷	10.9	39.7	51.7
	기타	1.4	5.3	6.2
전 체		41,002(100.0)	150,875(100.0)	186,774(100.0)

한편 현재 일자리 정보를 취득한 경로에서는 고졸자의 경우 부모, 친척, 친구, 선후배 등 인적네트워크를 통한 비중이 81.9%로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문대졸자 42.1%나 대졸자 31.0%에 비하여 크게 높다. 학교나 학원을 통한 경우는 전혀 없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일자리를 구한 경우도 10.9%로서 고학력자에 비하여 크게 낮다. 이와 같이 고졸자들이 주로 비공식적 경로를 통하여 현재 취업한 일자리의 정보를 얻고 있다는 것은 고학력자들에 비하여 이들을 위한 일자리 정보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또한 고졸자들이 구직을 함에 있어 정보를 모르거나 비체계적으로 임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실태에서 볼 때, 고졸자들이 취업한 현 직장에서의 임금수준도 고학력자에 비하여 크게 낮을 수밖에 없다. 시간당 임금을 보면, 고졸자들의 경우는 전문대졸자의 70.5%, 대졸자의 58.7%에 그치고 있다.

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표 5〉 현 직장 시간당 임금

(단위: 원)

학교유형	시간당 임금
고졸	5,866.3(100.0)
전문대	8,317.9(141.8)
4년제 대학	9,991.9(170.3)

주: 1) 연봉은 연봉/12개월, 주급은 주급*52주/12개월, 일급은 일급*5일*52주/12개월, 시급은 시급*8시간*5일*52주/12개월로 계산한 것을 정규근로시간과 초과근로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

2) ()는 고졸 임금을 100으로 하였을 때의 상대임금임.

이와 같이 고졸자의 고용형태나 근로조건 등 노동시장 실태가 전문대졸자나 대졸자에 비하여 열악하다는 점은 인적 속성이나 직무적 특성 등을 통제하여 분석한 윤형한·신동준(2012), 김유선·권혜자·김종진·이명규(2009) 등과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이다.

2. 취업결정요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같은 고졸자라 할지라도 재학 중 진로준비를 통하여 진학이 아닌 취업을 선택하였다면, 이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하여 취업이 훨씬 용이할 것이다. 또한 개인 특성이나 가족배경, 일자리 경험, 고교 재학 중 학교생활 등에 따라서도 취업성과는 달리 나타날 것이다. 이제 이러한 취업결정요인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기초통계를 보면, 2011년 2월에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 중 76%는 취업한 상태로서 그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많은 52%를 차지하고 있다. 전공은 상업계열이 49%로 가장 많고, 공업계열이 42%, 기타계열이 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교 성적은 중위권을 중심으로 정규분포 형태를 보이고 있다. 고교 재학 중에 취업목표를 설정하였다는 고졸자는 43.6%이고 교육과정 만족도나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도는 대체적으로 '보통'에서 '만족' 사이에 있다. 진로관련 경험빈도의 경우 2.67로 '보통'과 '거의 없음' 가운데 분포하고 있으며, 진로 상담은 83%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졸업 이후 현 직장 이전에 일자리를 경험한 경우는

〈표 6〉 변수의 기초통계

변수명		평균	표준편차	N	
종속변수	취업여부	0.759	1.368	5,281	
개인속성	성별(남자)	0.517	1.599	5,281	
학교생활	계열_공업	0.420	1.579	5,281	
	계열_상업	0.494	1.600	5,281	
	계열_종합	0.019	0.438	5,281	
	계열_실업	0.014	0.375	5,281	
	계열_기타	0.053	0.717	5,281	
	성적_상위권	0.089	0.911	5,281	
	성적_중상위권	0.250	1.386	5,281	
	성적_중위권	0.333	1.508	5,281	
	성적_중하위권	0.226	1.338	5,281	
	성적_하위권	0.101	0.965	5,281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도(5점 척도)		3.423	0.836	5,281
	재학 중 취업관련노력	취업목표 설정 여부	0.436	1.586	5,281
교육과정 만족도(5점 척도)		3.350	2.553	5,279	
진로관련경험 빈도(5점 척도)		2.675	2.730	5,280	
진로상담경험 여부		0.832	1.195	5,281	
일자리 경험	현 직장 이전 일자리 경험 여부	0.120	1.041	5,281	
	현 직장 이외 일자리 경험 횟수	1.322	0.714	5,281	
가구배경	아버지 학력(년)	11.640	8.050	4,572	
	어머니 학력(년)	11.354	7.522	4,728	
	가구원 수(명)	3.277	4.793	5,261	
	가구소득(범주)	2.967	4.235	4,897	
향후계획	군입대	0.267	1.415	5,281	

11.6%이며 평균 1.3회로 나타났다.

아버지 학력 및 어머니 학력은 각각 11.6년과 11.4년으로 평균적으로 고교 졸업에 가깝게 분포되어 있으며, 가구원 수는 평균 3.28명이고 부모님 소득은 2.97로 200만~300만 원 사이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향후 계획을 ‘군 입대’라고 응답한 비중이 26.7%로 나타나 군 입대가 고졸자 취업 분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이제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결정요인을 분석하여 보자. <표 7>에서 보듯이 고교 재학 중 취업관련 노력 가운데 진로관련 경험이 많은 학생일수록 취업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학 중 진로

〈표 7〉 고졸자의 취업결정요인

변수명		추정값	표준 오차	월드 카이스퀘어
상수항		1.414 ***	0.353	16.033
개인속성	성별(기준: 남자)	-0.156	0.123	1.601
학교생활	계열_공업	0.248	0.159	2.452
	계열_상업	0.611 ***	0.168	13.168
	계열_종합	0.008	0.364	0.001
	계열_실업	0.087	0.350	0.062
	성적_상위권	0.512 ***	0.197	6.746
	성적_중상위권	0.252	0.156	2.617
	성적_중위권	0.233	0.145	2.603
	성적_중하위권	0.132	0.152	0.760
재학 중 취업관련 노력	취업목표 설정	0.118	0.087	1.812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도	0.056	0.050	1.259
	진로관련 경험	0.088 *	0.051	3.035
	진로상담 경험	0.065	0.113	0.329
일자리 경험	현 직장 이전 일자리 경험 횟수	-1.019 ***	0.088	135.582
가구배경	아버지 학력	0.000	0.021	0.000
	어머니 학력	0.001	0.022	0.003
	가구원 수	-0.301 ***	0.029	110.657
	가구소득	0.064 **	0.034	3.565
향후계획	군 입대	-0.456 ***	0.105	19.009
모형 검정	AIC			4191.7
	SIC			4198.0
	-2 LOG L			4189.7
귀무가설 검정	Likelihood Ratio			469.0***
	Score			485.3***
	Wald			376.3***

주: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상담 경험이나 교육과정 만족도는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업계열의 경우 취업이 더 용이하며, 고교성적은 중위권 이상인 경우에만 취업이 더 잘되고 그 이하인 경우에는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자일수록 부의 관계를 보이기에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을 제외하면, 부모 학력이나 취업목표 설정, 교육과정 만족도 등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노경란·허선주(2012)의 연구결과와 같다.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취업확률이 더 높으며,¹²⁾ 1년 이내에 군 입대 계획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취업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도 이들 연구와 유사한 결론이다.

특이한 것은 고교 졸업 이후 현재의 직장 이전에 일자리를 경험한 횟수가 많은 학생은 오히려 취업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¹³⁾ 이는 재직 중인 고졸 청년층의 노동이동이 임시직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며, 잦은 노동이동의 노동시장 효과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김안국·신동준(2007)의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하지만 그 원인이 경험한 일자리가 경력 형성에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취업가능성이 높다는 분석결과와 연결하여 볼 때, 한눈팔지 않고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한 학생이 노동시장에 더 잘 진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¹⁴⁾ 또는 정보나 숙련 부족 등으로 인한 일자리 미스매칭이나, 현재 변수로서 설명되지 않는 개인의 성격 등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확보한 후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3. 노동시장 정착가능성

이제 대학진학 대신에 취업을 선택한 고졸자들의 경우 그러한 일자리가 계속 지속될 수 있는 성격인 것인지, 즉 노동시장의 정착가능성을 분석하여 보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취업을 선택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볼 수 있다. 첫째는 대학 진학보다는 바로 취업을 하는 것이 자신의 미래 진로에 더 유리할 것이라 보는 이른바 ‘경력경로상 자발적 취업선택’을 한 경우이며, 둘째는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학진학을 일단 포기하고 취업을 선택한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진학 취업’, 셋째는 고교 및 입학 성적 때문에 대학진학을 하지 못하여 취업을 선택한 ‘성적으로 인한 미진학 취업’이다. 만일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진학 취업’이나 ‘성적으로 인한 미진학 취업’이 주된 원인이라면 이들

12) 익명의 심사자는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대학진학을 더 선택하기에 취업확률과는 부의 관계를 보일 수 있다고 하였으나, 본 분석대상이 특성화고 졸업자로서 평균 가구소득은 200만~300만 원 미만의 낮은 수준으로 일반가구와는 다를 수 있다고 본다.

13) 현 직장 이전 일자리 경험여부를 변수로 채택하였을 경우에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14) 본 지적을 하여준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드린다.

은 노동시장에 진출하더라도 계속하여 상급학교 진학 등 계속 학습을 목표로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취업은 그러한 진학 준비과정에 임시적 경로일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고졸자 취업진로조사』에서는 고졸자들에게 향후 진로를 묻는 항목이 있다. <표 8>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니겠다는 응답이 37%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군 입대 26.7%, 직장 옮김, 미취업자의 경우 취업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학교로의 진학이나 어학연수·유학 등의 경우에는 6.5%에 불과하다. ‘그냥 쉬겠다’, ‘군 입대’, ‘구체적 계획 없음’ 등 진로에 대한 유보 또는 소극적인 비율이 33.2%로 높기는 하지만, ‘현재 직장 계속 근무’, ‘직장 옮김’, ‘취업’ 등 넓은 의미에서 노동시장에 머물겠다는 답이 58.3%로 절반을 넘어 생각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 응답이 특성화고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고졸자들의 노동시장이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시적으로 선택된 것인가를 먼저 다른 측면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향후 진로계획 중 대학진학이나 유학, 어학연수 등 ‘계속 학습 희망자’가 현재 취업자와 미취업자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카이스퀘어 검정을 통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고졸자의 노동시장 참여가 ‘경력경로상 자발적 취업선택’이 아니라 상급학교 진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표 8> 향후 진로계획

(단위: %, 명)

	미취업자	취업자	전 체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님	0.0	48.6	36.9
직장 옮김	0.0	15.6	11.8
취업	37.9	0.0	9.1
개인사업이나 창업	0.5	0.5	0.5
그냥 쉬겠다	0.8	0.3	0.4
국내 학교로의 진학	9.6	5.2	6.2
어학연수·유학	0.2	0.4	0.3
군 입대	36.7	23.5	26.7
구체적인 계획 없음	9.8	4.9	6.1
기타	4.3	1.0	1.8
결측값	0.1	0.0	0.0
전 체	13,022(100.0)	41,023(100.0)	54,045(100.0)

〈표 9〉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향후 계속학습 희망에 대한 차이 검정

	미취업자	취업자	검정값
향후 계속학습 계획 없음	11,741(90.2%)	38,761(94.5%)	<0.0001
향후 계속학습 계획 있음	1,281(9.8%)	2,262(5.5%)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임시적인 경우라면(‘경제적 이유나 성적 때문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 취업자의 경우에도 향후 대학 진학이나 유학 등 계속하여 학습하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 미취업자와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표 9>에 나타난 것과 같이 향후 계속학습 희망을 보면, 미취업자는 9.8%로 취업자의 5.5%에 비해 더 높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카이스퀘어 검정결과 유의 확률이 <0.0001로 검정 기준값인 0.05보다 작아 “취업자와 미취업자에 있어 향후 계속학습 여부에 차이가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취업자와 미취업자의 향후 계속학습 희망은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우리가 기대한 가설이 기각된 것은 본 자료가 특성화고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그럴 수도 있으며, 특성화고의 경우라 하여도 취업자보다는 미취업자의 경우 더 적극적으로 대학 진학이나 유학 등 계속 학습을 피하기에 당연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는 인문계를 포함한 전체 고졸자를 대상으로 한 보다 정교한 분석을 통하여 실증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제 이러한 기초분석을 토대로 고졸자들의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을 실증하기 위하여 현재 취업자를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보자. 노동시장에의 정착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종속변수로는 향후 진로를 묻는 항목에서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니겠다’(협의의 정착가능성)는 응답과 나머지 응답으로 나눈 것과,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니겠다+직장 옮김+취업+개인사업이나 창업’(광의의 정착가능성)과 나머지 응답으로 나눈 두 가지를 채택하였다. 또한 고졸자의 진로에서 군 입대, 대학진학 등에서 남녀 간의 차이가 클 수 있음을 고려하여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고교 재학 중의 취업관련 노력과 종속변수로 채택한 향후 진로 문항의 상관관계가 클 수 있기에 설명변수로 고교 재학 중 취업관련 노력을 포함하지 않은 모형과 포함한 모형을 차례대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남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를 보자.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니겠다’는 협의의 정착가능성(모형 1~모형 4)과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니든지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겠다’는 광의의 노동시장 정착가능성(모형 5~모형 8) 모두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는, 고교 재학 시 성적이 좋을수록 정착가능성이 높고, 현재 직장이 대기업, 제조업, 그리고 생산직일수록, 아버지 학력이 높을수록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반면에 종합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거의 일관되게 정착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결정요인에서처럼 고교 졸업 이후 현 직장 이전의 일자리 경험 여부나 횟수는 모두 광의의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에 부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한편 재학 중 취업관련 노력 변수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거나 그 외 변수들의 영향은 거의 변함이 없게 나타나고 있어 취업관련 노력과 기타 변수들 간에 상관관계가 거의 없음을 보이고 있다. 재학 중 취업관련 노력 변수를 하나씩 보면, 진로관련 경험이 많을수록 모든 모형에서 노동시장의 정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학 중 취업목표를 설정한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취업목표를 설정하였다는 것은 ‘경력경로상 자발적으로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진로상담 경험은 오히려 노동시장에 정착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앞의 취업결정요인에서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과 연결하여 볼 때, 재학 중 취업과 관련한 진로상담의 효과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재학 중 교육과정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특성화고 재학 중 교육과정에 만족한 학생들이일수록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고졸자 노동시장을 떠날 의향이 큼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본다.

나머지 변수에서는 현재의 일자리에 전반적으로 만족할수록 노동시장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아지나, 임금/소득 만족도의 경우 협의의 정착가능성에서는 정의 관계, 광의의 정착가능성에서는 부의 관계로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어머니의 학력과 가구소득은 광의의 정착가능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가구원 수는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다.

〈표 10〉 남자 고졸자의 노동시장 정착가능성

변수명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종속변수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니겠다				현재 직장 계속 또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겠다			
상수항		-5.21 ***	-4.18 ***	-4.93 ***	-4.18 ***	-2.14 ***	-1.41 ***	-2.00 ***	-1.51 ***
학교 생활	계열_공업(기타)	-0.05	-0.01	-0.05	-0.02	-0.15 *	-0.12	-0.17 **	-0.14 *
	계열_상업	-0.01	0.02	0.02	0.06	0.02	0.05	0.05	0.09
	계열_종합	-0.91 ***	-0.78 ***	-0.84 ***	-0.74 ***	-1.10 ***	-1.01 ***	-1.02 ***	-0.97 ***
	계열_실업	-12.75	-12.90	-12.67	-12.84	0.46 *	0.49 **	0.55 **	0.56 **
	성적_상위권(하위권)	0.85 ***	0.89 ***	0.78 ***	0.77 ***	0.59 ***	0.62 ***	0.47 ***	0.48 ***
	성적_중상위권	0.68 ***	0.78 ***	0.60 ***	0.65 ***	0.39 ***	0.46 ***	0.29 ***	0.33 ***
	성적_중위권	0.62 ***	0.72 ***	0.59 ***	0.65 ***	0.25 ***	0.33 ***	0.21 ***	0.26 ***
	성적_중하위권	0.39 ***	0.43 ***	0.33 ***	0.34 ***	0.22 ***	0.26 ***	0.14 **	0.17 **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도	0.14	0.21 ***	0.21 ***	0.26 ***	0.05 **	0.11 **	0.13 ***	0.17 ***
현재 직장 이전 일자리 경험 횟수	0.03 ***	0.05	-0.02	0.00	-0.15 ***	-0.12 ***	-0.20 ***	-0.17 ***	
가구 배경	아버지 학력	0.04	0.03 ***	0.04 ***	0.03 ***	0.04 ***	0.04 ***	0.04 ***	0.04 ***
	어머니 학력	-0.01	0.00	-0.02	-0.01	-0.02 *	-0.01	-0.02 **	-0.02 **
	가구원 수	0.02	0.02	0.02	0.02	-0.01	0.00	-0.01	-0.01
	가구소득	0.00	0.01	-0.01	0.00	-0.07 ***	-0.05 ***	-0.07 ***	-0.06 ***
현재 직장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0.52 ***	-	0.51 ***	-	0.20 ***	-	0.17 ***	-
	임금/소득만족도	-	0.12 ***	-	0.13 ***	-	-0.13 ***	-	-0.13 ***
직무 특성	임금근로자 여부	1.18 ***	1.26 ***	1.20 ***	1.28 ***	0.71 ***	0.78 ***	0.74 ***	0.80 ***
	대기업 여부	0.33 ***	0.32 ***	0.36 ***	0.35 ***	0.12 **	0.17 ***	0.15 ***	0.20 ***
	제조업 여부	0.42 ***	0.40 ***	0.48 ***	0.47 ***	0.43 ***	0.42 ***	0.49 ***	0.49 ***
	생산직 여부	0.37 ***	0.25 ***	0.35 ***	0.22 ***	0.19 ***	0.13 **	0.17 ***	0.11 **
재학중 취업 관련 노력	취업목표 설정	-	-	0.04	0.10 **	-	-	0.06	0.08 **
	교육과정 만족도	-	-	-0.21 ***	-0.17 ***	-	-	-0.25 ***	-0.21 ***
	진로관련 경험	-	-	0.24 ***	0.28 ***	-	-	0.25 ***	0.28 ***
	진로상담 경험	-	-	-0.38 ***	-0.32 ***	-	-	-0.13 **	-0.09 *
모형 검정	AIC	17342.2	17334.5	17334.5	17334.5	19132.9	19121.6	19121.6	19121.6
	SC	17347.5	17339.8	17339.8	17339.8	19138.2	19127.0	19127.0	19127.0
	-2 LOG L	17340.2	17332.5	17332.5	17332.5	19130.9	19119.6	19119.6	19119.6
귀무가설 검정	Likelihood Ratio	2841.3***	2443.1***	3025.9***	2670.0***	1442.3***	1401.2***	1686.2***	1668.6***
	Score	2560.3***	2250.5***	2710.3***	2438.9***	1383.6***	1347.9***	1597.0***	1586.1***
	Wald	2111.2***	1912.4***	2209.4***	2038.0***	1284.7***	1259.1***	1453.0***	1446.8***

주: ***,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와 다른 부분이 많은데, 공업계열, 상업계열, 실업계열 졸업생은 모든 모형에서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고교 재학 중 성적이 높을수록 현재 일자리에 계속 머물 의향이 큰 경우는 협의

〈표 11〉 여자 고졸자의 노동시장 정착가능성

변수명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5)	모형(6)	모형(7)	모형(8)	
종속변수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니겠다				현재 직장 계속 또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겠다				
상수항	-2.43 ***	-0.88 ***	-2.21 ***	-0.84 ***	1.09 ***	2.54 ***	1.30 ***	2.55 ***	
학교 생활	계열 공업(기타)	-1.74 ***	-1.35 ***	-1.69 ***	-1.32 ***	-1.54 ***	-1.42 ***	-1.50 ***	-1.38 ***
	계열 상업	-1.39 ***	-1.12 ***	-1.39 ***	-1.13 ***	-1.22 ***	-1.14 ***	-1.23 ***	-1.15 ***
	계열 종합	-0.27	0.17	-0.24	0.20	0.19	0.45	0.22	0.52
	계열 실업	-1.44 ***	-1.17 ***	-1.42 ***	-1.19 ***	-0.75 **	-0.67 **	-0.72 **	-0.66 **
	성적 상위권(하위권)	-0.01	-0.10	-0.02	-0.10	-0.78 ***	-0.78 ***	-0.81 ***	-0.81 ***
	성적 중상위권	0.30 ***	0.24 **	0.33 ***	0.28 ***	-0.56 ***	-0.51 ***	-0.57 ***	-0.52 ***
	성적 중위권	0.28 ***	0.24 **	0.32 ***	0.28 ***	-0.18	-0.17	-0.20	-0.19
	성적 중하위권	-0.16	-0.32 ***	-0.14	-0.27 ***	0.06	-0.07	0.03	-0.11
	학교생활 전반적 만족도	-0.06 **	0.02	-0.04	0.01	-0.05	0.04	-0.08 **	-0.03
현 직장 이전 일자리 경험 횟수	-0.18 ***	-0.04	-0.20 ***	-0.05	1.92 ***	1.61 ***	1.91 ***	1.53 ***	
가구 배경	아버지 학력	-0.03 ***	-0.05 ***	-0.03 ***	-0.05 ***	-0.02	-0.04 ***	-0.02 *	-0.04 ***
	어머니 학력	-0.03 ***	-0.01	-0.03 **	-0.01	-0.01	-0.01	-0.02	-0.02 ***
	가구원 수	-0.14 ***	-0.11 ***	-0.14 ***	-0.12 ***	0.01	0.02	0.01	0.02
	가구소득	0.12 ***	0.14 ***	0.12 ***	0.15 ***	-0.03	-0.01	-0.03	0.00
현직장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1.09 ***	-	1.11 ***	-	0.68 ***	-	0.68 ***	-
	임금/소득만족도	-	0.47 ***	-	0.48 ***	-	0.12 ***	-	0.11 ***
직무 특성	임금근로자 여부	1.73 ***	1.85 ***	1.74 ***	1.86 ***	0.80 ***	0.97 ***	0.80 ***	0.96 ***
	대기업 여부	0.32 ***	0.35 ***	0.31 ***	0.35 ***	-0.32 ***	-0.22 ***	-0.30 ***	-0.19 ***
	제조업 여부	0.63 ***	0.43 ***	0.61 ***	0.42 ***	0.75 ***	0.63 ***	0.72 ***	0.61 ***
	생산직 여부	-0.14 **	-0.31 ***	-0.14 **	-0.31 ***	0.20 **	0.10	0.18 *	0.06
재학중 취업 관련 노력	취업목표 설정	-	-	0.34 ***	0.32 ***	-	-	0.32 ***	0.29 ***
	교육과정 만족도	-	-	-0.09 ***	-0.01	-	-	0.03	0.10 ***
	진로관련 경험	-	-	-0.05 **	-0.03	-	-	-0.14 ***	-0.11 ***
	진로상담 경험	-	-	-0.12 **	-0.06	-	-	0.08	0.17 **
모형 검정	AIC	21498.5	21498.5	21498.5	21498.5	12421.2	12421.2	12421.2	12421.2
	SC	21503.9	21503.9	21503.9	21503.9	12426.6	12426.6	12426.6	12426.6
	-2 LOG L	21496.5	21496.5	21496.5	21496.5	12419.2	12419.2	12419.2	12419.2
귀무가설 검정	Likelihood Ratio	5929.2***	4386.3 ***	6005.8 ***	4451.9 ***	1355.3 ***	845.9 ***	1399.8 ***	894.8***
	Score	5399.3***	4233.7 ***	5458.6 ***	4288.1 ***	1259.9 ***	792.0 ***	1309.7 ***	853.1***
	Wald	3799.7***	3276.5 ***	3819.7 ***	3305.3 ***	1142.8 ***	749.1 ***	1170.4 ***	793.5***

주: ***, **, * 은 각각, 1%, 5%,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의 노동시장 정착가능성 일부이며, 광의의 정착가능성에서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남자와는 반대로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이 낮다. 현재 일자리에 대하여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동시장에 정착할 가능성

이 높은 점은 남자와 같으나, 남자와는 달리 임금/소득 만족도가 높을수록 모든 모형에서 노동시장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여자들은 남자와는 달리 현재 일자리에 만족하면 웬만하면 노동시장에 정착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고교 졸업 후 현재 직장 이전 일자리 경험의 경우 현재 일자리에의 정착가능성을 낮추고 광의의 정착가능성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남자와 반대이다. 이 역시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와 달리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다른 일자리를 찾더라도 상당 기간은 노동시장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가구소득이 협의의 정착가능성에서만 정의 관계를 보이고 가구원 수는 협의의 정착가능성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남자와 다른 결과이다.

현재 임금근로자이거나 제조업에 종사할수록 정착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남자와 같으나, 대기업일수록 현재의 일자리에 정착할 가능성은 높이는 반면, 광의의 정착가능성에는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고, 생산직 종사자는 현재 일자리에 정착할 가능성이 낮으며 광의의 정착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은 남자와 다른 결과이다.

재학 중 취업관련 노력에서 취업목표를 설정한 경우에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이 더 높다는 점은 남자와 같으나 교육과정 만족도는 모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고 진로관련 경험은 남자와 달리 부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진로상담 경험이 현재 일자리에의 정착가능성을 낮추는 것은 남자와 같으나 광의의 정착가능성은 높이고 있어, 현재 일자리에 부의 효과를 미치더라도 남자와는 달리 넓은 의미의 노동시장 정착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다.

V. 결 론

본고에서는 2011년도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동시기의 대학 졸업자와 비교함으로써 고졸 청년층의 취업실태를 먼저 살펴보고, 고졸자의 취업결정요인, 고졸자의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을 차례대로 분석하였다.

기초분석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 대졸 취업자에 비해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도 낮은 일자리에 많이 취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직장에서의 업무도 교육수준과 불일치되는 비중이 크고, 구직정보 획득이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졸 취업자의 이러한 특성은 고졸자 노동시장이 상당히 불안정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다음으로 고졸자의 취업결정요인을 분석하였는데, 고교 재학 중 취업관련 노력 중 진로관련 경험이 많은 학생일수록 취업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학 중 진로상담 경험은 부호는 정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재학 중 취업목표 설정이나 교육과정 만족도는 취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상업계열의 경우에는 취업이 더 용이하며, 고교성적은 상위권 이상인 경우에만 더 취업이 잘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중위권 이하인 경우에는 취업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별이나 부모의 학력은 취업에 영향을 못 미치고 있으며,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취업확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고교 졸업 이후 현재의 직장 이전에 일자리를 경험한 학생은 오히려 취업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에서는 남녀 간에 일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자의 경우, 고교 졸업 이후 현 직장 이전의 일자리 경험은 광의의 정착가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나 여자의 경우에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현재 직장을 계속 다니겠다’는 협의의 정착가능성에서도 남자는 부분적으로 정의 관계, 여자는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여자의 경우 남자와 달리 일단 노동시장에 진입하면 현재 일자리를 떠나 다른 일자리를 찾더라도 상당 기간은 노동시장을 떠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재학 중 취업목표를 설정한 경우에는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이 더 높는데, 이는 취업준비를 통하여 ‘경력경로상 자발적으로 취업’을 선택할 경우에 노동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 재학 중 진로관련 경험이 많을수록 노동시장에 정착가능성이 높으나 여자는 반대로 나타나고 있으며, 재학 중 진로상담 경험은 남녀 모두에서 오히려 현 직장에 계속 근무할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특성화고교에서 진로관련 경험이나 취업과 관련한 진로상담이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함을 시사하고 있다. 고교 재학 중 성적이 높을수록 또한

현재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가 클수록 협의의 정착가능성, 즉 현재 일자리에 계속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남녀 모두에 공통적이다. 남자의 경우에 재학 중 교육과정 만족도가 높을수록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재학 중 교육과정에 만족한 학생들이수록 상급학교 진학 등으로 고졸자 노동시장을 떠날 의향이 큼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여자는 일관된 결과를 보이고 있지 않다. 제조업, 임금근로자일수록 현재 일자리나 넓은 의미의 노동시장에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남녀 모두에게 같으나, 생산직, 대기업 종사자 여부가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 간에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여자의 경우에만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현재 일자리 정착가능성을 높이고 있으며, 광의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남자의 경우 가구원 수의 영향은 없으나, 여자의 경우에는 가족이 많을수록 현 직장에 머물 가능성을 낮추고 있다. 아버지의 학력은 남자의 경우에는 정의 관계, 여자의 경우에는 부의 관계를 보이며, 어머니의 학력은 남녀 모두에서 부분적으로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본 분석 결과는 청년층 고용문제 가운데, 특히 고졸자 고용문제는 고학력 청년층과 구별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고교 재학 중에 진로준비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스템이 필요한데, 특히 진로상담을 내실화하고 잦은 노동이동 없이 조기에 노동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노동시장으로의 원활한 이행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를 재학 중 학교 내에 우선 마련하도록 하고 그 이후 이행을 지원하는 일자리 매칭 시스템, 직업훈련 정책 등이 학교 밖에서 보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간 별로 다루지 않았던 고졸자의 노동시장 정착가능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히 고교 재학 중 진로지도와 진로관련 노력이 노동시장 정착가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고졸자에 대한 비교적 풍부한 표본과 조사내용에도 불구하고 횡단면조사 자료이기에 관찰되지 않는 이질성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내생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졸업과 조사시점의 차이가 몇 개월에 불과하여 고졸자 노동시장 이행과 정착과정을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분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자료가 패널조사로 구축되면 고졸자 노동시장의 동학(dynamics)에 대한 보다 정직한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또한 조사 표본의 한계로 인하여 일반계 고등학교를 포함한 온전한 고졸자에 대한 분석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역시 앞으로 『고졸자 취업진로조사』 자료가 극복하여야 할 과제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고졸자들의 노동시장 정착에는 수요 측의 요인도 많이 작용할 것이나 자료의 제약으로 이에 대하여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였는데, 이것도 추후 연구하여야 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 장순희·이상준(2009). 「진로지도의 전공선택, 고용 및 임금효과」. 『진로교육 연구』 22 (4), 한국진로교육학회.
- 김강호·정윤경(2009). 「전문계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 발달과 영향변인」. 『제4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안국(2003). 「청년층 미취업의 실태 및 원인 분석」. 『노동경제론집』 26 (1): 23~52.
- 김안국·신동준(2006). 「고졸 청소년의 노동시장 이행과 취업 실태」.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2007). 「고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초기 정착 과정」. 『제2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_____(2011). 「전문계고 졸업 여성청년의 고등교육 진학 선택」. 『산업노동연구』 17 (2): 1~27.
- 김유선·권혜자·김종진·이명규(2009). 『고졸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 김정숙(2009). 「대졸자들의 취업준비활동의 차이 및 직업이행효과」. 『교육과학연구』 40 (1): 141~165.
- 김충기(2000). 『교육심리학』. 동문사.
- 남재량·이철인·전영준·우석진(2011). 『청년층 노동시장 진입 및 정착방안

-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노경란·박용호·허선주(2011). 「대학 재학 중 진로개발프로그램 참여 경험이 대졸 청년의 능력개발 노력과 주관적 취업 만족에 미치는 영향」. 『2011 고용동향조사 심포지엄』. 한국고용정보원.
- 노경란·허선주(2012). 「특성화고 졸업 청년층의 취업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5 (2) : 25~49.
- 류장수(1993). 「한국노동시장의 숙련별 분단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경제학회 1993 발표회 자료집』. 한국노동경제학회.
- 박상현(2012). 「미진학 고졸 청년층을 위한 정책과제」. 『고용이슈』 2012년 3월호.
- 박진희(2012). 「고졸 미진학 청년층의 노동시장 현황과 시사점」. 『고용이슈』 2012년 3월호.
- 박성재·반정호(2006). 「청년층의 하향취업 원인과 노동시장 성과」. 『사회보장연구』 23 (4) : 1~28.
- 박혜숙(2009). 「고등학생의 진로결정여부에 미치는 요인탐색」. 『제4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변수용·김경근(2012).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 영향요인」. 『제7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안준기(2009). 「어학연수가 졸업 후 노동시장 진입에 미치는 영향」. 『교육행정학연구』 27 (2) : 203~231.
- 이병희(2003).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 이병희·안주엽·전병유·장수명·홍서연(2002).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 이행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윤형한·신동준(2012). 「고졸 청년 취업 실태 분석」. 『e-HRD Review』.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상준(2009). 「고등학교 진로교육이 대학 전공일치에 미치는 효과」. 『교육연구』.
- 이시균·양수경(2012). 「초기노동시장 경험이 향후 청년 고용성과에 미치는 효과」. 『동향과 전망』 84 : 222~250.

- 이효수(1984). 『노동시장구조론: 한국 노동시장의 이론과 실증』. 법문사.
- 정인수 · 남재량 · 이승우(2005). 『고졸 이하 청년층 실업실태 파악 및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전병유 · 이상일(2003). 『고졸 미진학 청년층의 고용실업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채창균(2006).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진로 선택」. 『제1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최동선(2008). 「전문계 고교생의 대학진학 계획」. 『제3회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2011). 『2011 교육통계연보』.
- Akerlof, G. A. and J. L. Yellen(1986). *Efficiency Wage Models of the Labor Market*.
- Anderson, Patricia M.(1993). “Linear Adjustment Costs and Seasonal Labor Demand: Evidence from Retail Trade Firm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8 : 1015~1042.
- Becker, G.(1993). *Human Capital -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 Jovanovic, Boyan(1979). “Job Matching and Theory of Turnover.”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7 (5) : 972~990.
- Marsden, David W. and Jean-Francois Germe(1991). “Young Pepple and Entry Path to Long-Term Jobs in France and Great Britain.” *The Problem of Youth: the Regulation of Youth Employment and Training in Advanced Economies*, pp.178~199.
- Osterman, Paul(1980). *Getting Started: the Youth Labor Market*.
- Pascual, A. S.(2000). *Tackling Youth Unemployment in Europe: Monitoring the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European Trade Union Institute, Brussels.
- Ryan, Paul(2001). “The School to Work Transition: A Cross-National Perspective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9 : 34~92.
- White. M. and J. Killeen(2002). “The effect of careers guidance for employed adults on continuing education: Assessing the importance of attitudinal information.” *Journal of royal statistical society* 165 : 83~95.

abstract

The Employment Determinants and Labor Market Attachment Possibility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Soonhie Kang

This paper analyzed the labor market situation, employment determinants, and labor market attachment of the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using the raw-data of High School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2011. The result shows that their jobs are more unstable, their wages are lower, mismatch between jobs and education attainment is bigger, and acquisition of job information is more unsystematic comparing to the college graduates. The career-building activities during the high school life affect the employment positively, but career consulting does not. Prior work experience affects the employment negatively, which shows that frequent job turnover does not help for their career building. The employment goal setting during the high school life makes their employment more stable, so they are more likely to settle down in the labor market. The career consulting experience or work experience, however, affect the labor market attachment negatively. It means that career consulting in the high school is not effective.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employment policy should be different between the high school graduates and the college graduates, since the structure and cause of employment problems are different. The career guidance and career consulting in the high school also should be advanced to increase their effects.

Keywords : labor market of the highschool graduates, employment determinants, labor market attachment possibility, career-related experience while in high school, career guidance